

시정질문서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정 한	서 명	
제 목	다시 생각해야 하는 관광 산업	담당실과	시 장

우리는 가장 축복 받은 천혜에 자원을 갖고 있는 속초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계가 아름다운 것들로 어느 것 하나 버릴것이 없는 아름다운 소도시, 다른 지역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곳에 사는 시민들입니다. 사계절을 관광지에 걸맞는 특성이 자라게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관광산업은 아직도 7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적인 관광 산업, 속초만의 삶이 녹아 있고 문화가 숨쉬고 있고 주제가 형성 되어 있는 관광 불거리가 전혀 없다는 현실.

하늘이 부여하고 주어진 자연 조차도 잘 관리되지 못하고 혐오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모텔산업!. 산과, 바다, 호수를 끌어들여 삼위 일체가 형성되어 어우러지는 다시 찾고 싶고,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관광지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속초시가 무엇입니까? 풀더미가 묶여 있다는 곳 아닙니까. 어느 한 곳 묶여져 있는 대표적인 마을이었어야 합니다. 모두 풀어놓아 의미없는 속초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관광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1. 시청에 시민들을 끌어들이야 합니다.

쉬운 예로 강릉시청을 문화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놓은 것은 배워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열려있는 공간들. 시민들에 문화와 음악사랑을 도와주는 시청, 그곳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월드컵을 이뤄냈던 그 공감대를 시청 앞마당에 끌어들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2. 건축에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제가 있는 말을 길목 이정표에는 도로명에는 무슨무슨 길로 써 있습니다 만, 과연 그 주제가 형성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봅시다.

버려진 휴경지를 이용한 꽃단지 조성물은 시민들에게 놀이광장 내지는 분수, 어디를 가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에 분수하나 뽐어내지 않는 곳은 이곳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베르사이유 궁전 산책로 출발 지점 에 위치한 워터 파르테르 앞에 위치한 라토나분수는 베르사이유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후손들에게 남겨 줄 수 있는 유산들, 순간적인 공법으로 뜯었다 고쳤다 하는 개념자체가 바뀌어야 되며 백여년을 두고도 다시 볼 수 있는 가치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주제가 있는 민박에 정립

미국 우드스톡에 winslow house(윈슬로 하우스)

문화에 정면에서 생각해볼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며 우리에게 민박과 대비시켜 소개 하고져 합니다.

winslow house : 뉴잉글랜드 지방의 뉴햄프셔주와 버번트주에 자리한 이곳은 우리에게 노학동 마을을 연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방에 하나로 꿈히는 이곳은 3천명정도에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사랑스런 마을입니다. 우드스톡에 위치한 윈슬로 하우스는 1872년 세비카 윈슬로 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원래는 3개 건물이던 것을 하나로 개축한 뒤 뉴잉글랜드 스타일이 풍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곳이 출입구가 되도록 개조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뉴잉글랜드의 전통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윈슬로 하우스는 그 곳만에 스타일에 인테리어 로 잘 어울리며 일반 투숙객들을 위해 게임관과 여행책자를 비치하는 세심함도 주인의 특성입니다. 복도를 따라 식당으로 가면 지형적인 뉴잉글랜드 농가에 식탁이 있고 출입구를 가능한 살리면서 4개에 방을 꾸몄습니다.

19세기 뉴잉글랜드 지방에 모습과 현대에 모습이 매치되어 스콜스런 분위기를 내면서도 결코 시골이 아닌 자연 친화적인 대표적 B and B 라고 할것입니다. 자연에 경관과 어우러져 뽐어대는 아름다움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 기억속에 언제든지 머물러 있기에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winslow house 는 우드스톡에 유명한 B and B 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헐고 짓고하는, 아니 30년을 못가는 건축물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장구한 세월이 지나도 손때 묻어 세월이 녹아나는 그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접속된 개념에 B & B 규격화 되어지고 모방에 능한 그런것에서는 이제는 탈피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주제가 있는 마을을 만들고 가꾸어 우리에 후손들에게 예쁜 시를 물려 주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 관광자원들에 활용법과 자기만에 특색있는 관광 캐릭터와 문화유산을 갖고 다듬고 보호하고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30여년간 국립공원에 묶여 그나마 개발이 지연되어 온 노학동은 우리시의 마지막 관광자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대로 방치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 진다면 난 개발이 될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개발의 첫발을 디딤는 노학동 지역을 기초로 삼아 우리 관광속초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부터라도 노학동 지역을 테마마을로 조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테마에 맞는 도시계획 지정 즉, 관광, 문화 등 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둘째, 지구지정과 연계하여 자연과 잘 어우러진 건축양식이 마을별로 테마에 맞는 건축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관광자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즉, 온천지구 일대는 온천 마을에 맞는 건축양식, 신향민 민속촌이 위치한 박물관 지역은 박물관 지역에 맞는 건축 양식 등 마을 별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셋째, 테마 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지구지정, 건축양식 지정 등을 기반으로 하여 테마별 건축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는 시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다시 생각해야 하는 관광산업 (P215~227 참조)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박 명 수	서 명	
제 목	사업의 실명제 추진에 대해서	담당실과	부 시 장

안녕하십니까? 박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있는 도시 미래도시 속초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동문성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화점이나 관공서 어디를 가도 사진이 담긴 이름표를 가슴에 단 종업원이나 공무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표를 달기 전에는 고객이나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름표를 부착한 후 부터 친절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에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농산물이나 공산품에도 생산과의 이름이 표기되어 고객으로부터 신뢰 및 좋은 평가를 받고 제품의 매출이 향상 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동안의 일방통행식 행정의 수혜자였으나 행정의 산물인 정책, 행정, 공사 등의 실패로 인한 부실공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소모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피해는 바로 납세자인 시민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주시 남산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신라 진평왕 때 쌓았는데, 그 당시 축성과 관련한 비문에는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신해년 2월 26일에 남한산성을 만들 때 법에 따라 만든지 3년 이내에 성이 무너지면 죄로 다스릴 것을 널리 알려 서약케 했다는 글과 함께 축선에 참여한 촌락, 지방관, 기술관, 촌장 등 각각의 이름, 직능, 관등명 등을 명기한 명단, 축성거리 등을 담고 있어 성벽에 이상이 생길 경우 책임질 사람을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실명제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실명제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시 도시계획은 과연 타당한가, 자전거도로, 소방도로, 수해복구공사, 논산리 정수장 등 그리고 각종용역, 정책 등의 사업을 그 공과에 대하여 책임의 한계를 분명해 질 수 있는 신상필벌의 실질적인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실명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인 실명제의 종류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정책실명제, 행정실명제, 공사실명제 등 실명제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부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박 명 수	서 명	
제 목	지리정보 DB구축에 대하여	담당실과	부 시 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520여 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시도 급격한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토지이용상황이 급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시민들 또한 토지의 권리의 제반사항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금 수기로 발급하고 있는 민원 업무를 수처·지도를 이용하여, 도시계획도면의 관리와 국토이용의 용도지역과 토지거래, 도시계획의 용도지점,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내용 등의 관리를 전산화 하여, 토지정보화 체계적 관리, 신속한 업무처리, 자료공유, 인원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와 민원인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발급함은 물론, 다양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폭넓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원 발급은 민원실 및 도시과 소관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서류에 기입하는 서류 자체가 종합자료 검토 후 해당 실과에서 확인 후 최종 발급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작업 발급에 따른 오류발생 및 중복된 업무처리로 인한 인적 및 시간적 자원낭비가 됩니다. 20세기는 FA(사무자동화)시대였지만, 21세기는 IT(정보화시대)입니다. 요즘은 1년이 20세기 초반에 10 내지 30년 단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구에서 지리정보 DB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민원 건수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종합민원실에서 1년간 처리하는 민원건수는 108,645건이며, 이를 세분하면 토지대장 64,666건, 임야대장 6,845건, 지적도 11,668건, 임야도 952건, 경계점자표 등록부 11건, 공시지가 9,150건, 도시계획확인원 15,783건이 됩니다. 위에 열거 한것을 보듯이 도시계획 확인원이 민원의 두 번째이며 15% 이상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외 지역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건수도 약 2,500여건 됩니다.

그리고 토지계획이용계획서 1건당 수기로 작성하였을 때 약 7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지리정보 DB를 구축하였을 때는 약 1에서 1분 2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절약된 시간을 계산하면 1,740시간이 되며, 날짜로 계산하면 70일, 공무원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17일 정도의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다른 시군에서는 일용직으로 대처하고 예산도 절감하며, 도시계획에 관한 용역시, 여러 가지 등등해서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리정보, DB 시스템 구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거나 향후 보완 정비하여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성 근	서 명	(국회)
제 목	시내중심상가 군부대이전 촉구	담당실과	도시과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청학동 주민들은 지난 50여년이 넘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 군부대 시설물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정보사 부대는 50년이 넘게 7번국도의 시내 중심가인 청학동 한국통신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간혹 길을 잘못들어 그곳 입구라도 갈 경우가 생기면 정문에 있는 경비들과 마주치면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다른 세상으로 여겨지는 곳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시내 상권의 중심에 있어 지역상권의 개발에 제약이 따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초호의 수질보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특히, 청초호 유원지의 수질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보사 부대는 토지 5필지 5,957평, 아파트 2동 42세대, 단독주택 2동 및 군부대 시설 5개소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속초시에서는 석봉도자기미술관에서 속초수협 인근 금호 유료주차장까지 연장 866M,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정보사 부대가 이 사업구간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 이전이 선행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곳은 청초호유원지와 인접한 곳으로서 교통 석봉도자기 미술관에서 중앙동 속초 수협까지 866M구간은 생활하수가 청초호로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청초호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초호는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수관거의 미설치 지역으로 인해 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교동주민들은 하루빨리 하수도 차집관거 시설사업을 통한 청초호 수질보존과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발전과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사 부대의 이전을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시설물이 이전 된다면 이 지역은 폭 12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해안도로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유입되어 상가의 형성이 이루어 지고 활성화 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런 청초호수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부대의 이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과 군부대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

둘째, 군부대 요구조건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길 바라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성 근	서 명	
제 목	해안침식에 대한 대비책 강구	담당실과	해양수산과

최근 매스컴에서는 연일 동해안의 해안침식에 대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에 의하면 지난 99년 이후 동해안에서는 백사장이 유실되거나 해안도로, 주택이 붕괴되는 해안침식 현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피해가 심한 우리시 관내 영랑동을 비롯한 타시군 3개소는 이미 침식방지를 위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해안침식에 대한 조사와 방지대책 용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안침식의 원인을 방파제 등 구조물 설치로 해류가 변화되어 모래이동이 차단됨에 따라 해안 백사장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시군에서도 해수욕장에 바닷물이 역류하여 백사장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백사장이 유실되면 해수욕장의 폐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관광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동해바다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말이면 우리시의 해수욕장 등 백사장은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우리의 백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적인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의 백사장을 지키기 위한 자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사동, 영랑동 일대에 추진중인 해안침식 방지사업 추진현황과 추가 사업계획에 대하여

둘째,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래를 이동시키는 해류의 흐름을 조사하는 등 장·단기적인 자체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고 학 재	서 명	
제 목	환경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담당실과	환경보호과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로 말미암아 매년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관광도시인 우리시는 매년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앞으로 1-2년 이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사용중인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을 상주시켜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불량쓰레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품 선별장의 운영인력 및 재활용품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둘째, 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 운영현황 및 운영 성과는?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체계와 용역회사별 수거시간 및 수거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05년 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매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켰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비하고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는 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1년 후면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 해야 하는 등 주민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사전 홍보대책은 차질없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얼마전 매스컴에 의하면 그동안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까지 마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인근 지역의 반대로 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정 한	서 명	
제 목	재난대비 대책 추진 관련	담당실과	건설과장

최근 기상이변으로 중남부 지방에 때 늦은 폭설로 많은 재산 피해와 교통이 마비되는 등 전국각지에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지역은 태풍 루사와 매미피해 이후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서 금번 겨울은 눈이 오지 않아 피해는 없었으나 담당부서에서 폭설을 대비하여 골목길 아파트 단지의 경사진 곳에는 염화칼슘 및 제설용 모래를 비치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시민과 본 의원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 한해도 기상이변으로 많은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것이라 생각되는 바, 우리시의 방재대책 시스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태풍 루사와 연이은 매미 피해를 입으면서 아직까지 복구가 미흡한 농수로,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정 한	서 명	
제 목	도시의 균형발전 방안 강구	담당실과	도 시 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99관광엑스포를 치르면서 접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만, 우리시의 도시계획 분야를 살펴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장기간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들도 많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속초시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랑동 지역이 그 동안 소외되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발전에서 낙후된 곳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년~40년 이상된 주택들이 노후되어 건물 보수 등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만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재의 영랑동 일대는 구) 7번 국도를 기준으로 (썸비치 모텔에서 양우 아파트 앞 구간)영랑동 해안도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횡적인 도시계획 도로는 (4개소) 기 개설 되어 있으나,

영랑동 6통에서 부터 8통 구간의 중심도로인 "사돈집"에서 부터 남북으로 연결될 도시계획 도로 (소로 2-2, 8m)는 이미 30여년 전에 구획된 도로로서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이 지역의 관광여건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의 재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옆 테니스장에서 속초의료원 (영랑동 582-7번지의 28필지 약 6,500m²)구간은 매년 장마 때마다 집중호우로 인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등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해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항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택은 27가구로서 인근의 도로나 시 테니스장보다 1m이하 더 낮은 저 지대로서 장마철에는 매년 배수펌프시설을 가동하고는 있지만 고장이 잦을 뿐만 아니라, 배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립주택 3동(84가구)도 '82. 3. 28일 전립되어 전반적으로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실이 항상 침수되어 붕괴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등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장마 때마다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 태풍 루사 때에는 1미터 이상 물이 잠겨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등 상습침수 지역으로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곳을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기반시설 등을 보강하고 아파트 단지 조성 및 건립을 민간자본 등을 통한 재개발을 유도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말끔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증가정책 에도 기여하여 우리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홍 우 길	서 명	
제 목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 강구	담당실과	세 무 과

최근 10년을 전후해서 장기적인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은 최악의 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우리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다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돈을 쓰는 데에만 급급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일에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4년 계획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금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은 2004년 목표액 44,686백만원 으로서 2003년 당초목표액 41,390백만원 보다 3,296백만원이 증가할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주로 도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증가, 시세의 경우 부동산 과표현실화 및 자동차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가 전부입니다. 지방세는 매년 한정된 세입에 불과하며 의존세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고 한정된 지방세 위주의 세수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세원을 증대할 수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원의 발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둘째, 은익·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확행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홍 우 길	서 명	
제 목	서민주택 안정에 대하여	담당실과	도시과장

우리시의 2002년도 주택 보급률은 96.9%로서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발표에서도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여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호아파트, 늘푸른 아파트 등이 건설된 이후 최근 4년여간 아파트 건설은 이루어 지지 않은 반면, 노학동 삼호 아파트를 비롯한 조양동 성호 아파트, 부영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4,083가구는 2005년도에는 모두 분양할 계획에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분양대상 아파트 대부분이 IMF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05년도에 계획된 임대아파트 전량이 분양된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시는 또다시 주택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택지의 개발과 임대주택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사항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주택 보급률이 110%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수치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홍 우 길	서 명	
제 목	장애인재활 전문치료센터 설치	담당실과	보건소장

영북지역(속초·고성·양양)은 장애인 재활치료센터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나, 장애인 재활전문 치료센터가 전무하여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강릉까지 통근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강릉으로 통근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세한 가정은 그나마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생활여건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상 장애인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도 장애인 재활 전문치료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추진사업 및 계획에 대해서

둘째, 속초의료원에서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진국	서명	
제 목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대책 강구	담당실과	부시장

금년 영농기는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인한 황사 피해와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우려되는 등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과,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유류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농업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무려 20%이상 오르면서 농민들은 영농준비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됨에 따라 공산품 수출부문에서는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는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향후 10년간 농촌을 회생 발전시키기 위해 FTA지원특별기금의 증액지원 등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 과정에서 쌀, 사과, 배 등 민감한 품목 등이 제외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잘 아시다시피 칠레는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서 언제까지나 협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밀듯이 밀려들어 올 값싼 외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습득과 정보교류를 통한 자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산물 생산도 고품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개발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 생각되는 데 유망 품종 개발을 위한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제 우리 농촌도 스스로를 변화 시킬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만이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기술정보, 성공사례 등 최신의 자료와 각 분야의 전문서적 등에 대한 자료를 다량 보유하여 농민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진국	서명	
제 목	농촌동 근무환경 개선방안	담당실과	자치행정 과 장

지난 3월 10일 청대리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동 직원들은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에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며 주민대피에 힘썼으며, 산불이 진화된 후에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불피해의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며 각종 구호품 전달 지원, 농가 영농사업 지원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신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산불발생에 따른 동사무소 직원들의 지원활동 사항을 곁에서 보면서 본 의원은 동사무소의 대민지원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가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다른 동사무소도 똑같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만, 특히 대포동, 노학동, 조양동 등 넓은 농촌지역의 근무직원들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대민지원 활동시에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차량 유지비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일뿐만 아니라, 승용차로 지원할 수 없는 각종 장비, 행사지원시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화물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각종 재난활동에 신속하게 대비하여 원활한 대민지원 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동직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 동사무소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화물차량의 보유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